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유해물질 취급현황

이꽃메<sup>1)</sup> · 김희걸<sup>2)</sup> · 정혜선<sup>3)</sup> · 김현리<sup>4)</sup> · 송연이<sup>5)</sup> · 현혜진<sup>6)</sup> · 김정희<sup>7)</sup> · 남소정<sup>8)</sup>

상지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 경원대학 간호과<sup>2)</sup>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sup>3)</sup>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sup>4)</sup> · 문경대학 간호과<sup>5)</sup>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sup>6)</sup>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sup>7)</sup> · PEG<sup>8)</sup>

## 1.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 작업 환경과 유해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여 그들을 위한 산업보건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2005년 9월에서 10월까지 전국 8개의 진료소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등 4개국어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사회적지지, 건강 행태, 작업 환경, 안전보건실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구조화된 질문이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동의를 구한 후 개인별로 설문지를 주었다. 위 4개 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스스로 설문지를 기입하였으며, 그럴 수 없는 경우 일대일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41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89명(21.8%)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96명(23.7%)는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비교적 학력이 높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함께 시행한다면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1시간 이상인 경우가 174명(43.7%)였고, 업무에서 육체적 부담정도는 매우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162명(40%)이었으며, 주로 서서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60명(64.8%)이었다. 월 급여는 80만원 미만인 경우가 142명(35.9%)였다.

건강상태는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159명(38.6%)이었으며, 작업환경 중에는 반복적 작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아 276명(72.6%)였다.

건강진단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경우가 249명(62.4%)이었고, 안전보건교육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18명(60.4%)이었다. 화학물질은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0명(44.5%)였으며, 알콜, 신나, 벤젠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담 하에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에 대한 의사소통은 부족하고 안전보건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